

양익지, 6번째 포수 골든글러브 사실상 예약

오늘 오후 시상식...NC 첫 통합 우승 큰 공 세워

장타율서 2위·홈런 4위 등 주요부문 큰 활약

NC 다이노스의 양익지가 포수부문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 사실상 예약했다.

2020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1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KBO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에 도전하는 올해 후보자는 총 87명이다. 이중 올 시즌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10명만이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게 된다.

가장 주목되는 후보는 포수 부문의 NC 양익지다.

올해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한 양익지는 NC가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정규시즌 타율과 장타율에서 2위, 홈런 공동 4위 등 타격 주요부문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양익지는 지난해 골든글러브 투표에서도 득표율 91.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즌에도 수상한다면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일 뿐만 아니라 포수 부문 통산 6회 수상으로 이만수, 강민호(5회)를 제치고 포수 부문 최다 수상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된다. 포수 부문 통산 최다 수상자는 김동수(허어로스)의 7회다.

올해 후보에 오른 선수 중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자는 이대호(롯데)와 최정(SK)이다. 각각 6차례씩 수상했다. 올해 골든글러브를 받는다면 김동수, 이병규(LG)와 함께 통산 최다 수상 공

동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역대 KBO리그의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자는 총 10회 수상에 빛나는 이승엽(삼성)이다.

키움 김하성과 이정후도 나란히 3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 지난해 325표를 얻으며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 영예를 안은 김하성은 이번 시즌 유격수 중 유일하게 30홈런-100타점을 기록했다. 만약 김하성이 수상하게 된다면 김재박(태평양), 강정호(허어로스)만 이름을 올린 유격수 부문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지난해 외야수 부문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이정후(90.8%)는 올해도 정규 시즌에서 최다 2루타 신기록(49)을 세우는 등 굵직한 기록을 남겼다. 이정후가 2018,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된다면 장효조(삼성), 박재홍(현대), 이병규에 이어 역대 외야수 중 4번째로 데뷔 4년차에 골든글러브 3회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쓰게 된다.

역대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 최고 득표율의 기록 경신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역대 골든글러브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한 선수는 2007년 외야수 부문 수상자인 두산 이종욱으로 총 350표를 획득했다. 이 기록은 지난해까지 12년간 깨지지 않고 있다.

최고 득표율 기록 또한 2002년 삼성 마해영(지명타자)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99.3%를 기록한 이후 17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장 높은 득표율은 김하성(7)의 93.7%다.

단 2표 차이로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갈린 경우도 있었다. 정구선(1983년 삼성), 김동수(1994년 LG), 양준혁(2001년 LG), 조인성(2010년 LG)이

각각 경쟁자를 2표 차이로 누르고 극적으로 수상했다. 이번 시즌도 3루수, 외야수, 지명타자 등 각축이 예상되는 포지션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선욱기자



유탑그룹과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 상조회는 지난 9일 광주유탑부티크호텔 & 리조트에서 정병래 유탑그룹 회장과 김성한 전 감독, 송유석 전 야구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사진=유탑그룹 제공)

‘레전드’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 소장품 광주 유탑호텔에 전시

유탑호텔-해태레전드 상조회 MOU 체결

야구 명가, 기아 타이거즈의 전설인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 선수들 소장품이 유탑호텔에 전시된다.

유탑그룹은 10일 유탑호텔과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 상조회가 최근 MOU를 체결하고 스포츠 관련 마케팅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탑호텔은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의 소장품을 기증받아 광주 유탑 부티크 호텔 & 리조트에 전시할 예정이다.

유탑호텔에는 해태 타이거즈 마지막 감독이자 기아 타이거즈 첫 감독을 역임한 김성한 전 감독과 송유석 전 야구선수 등의 기증품이 설치된다.

정병래 유탑그룹 회장은 “야구로 하나가 됐던 그 때 그 시절 광주의 모습을 재현해보기 위해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 상조회와 협약을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귀중한 소장품을 잘 전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고객들에게 옛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유탑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은 유탑 유틸레스 호텔 제주,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 광주 유탑 부티크 호텔 & 레지던스 등이며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는 제1회 국제관광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희기자

아홉수에 막힌 전자랜드, 선두에서 6위로 추락

김낙현·이대현 상대 집중 견제에 시달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가 아홉수에 막히면서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 9승을 신고한 이후 6연패를 당하면서 단독 선두에서 공동 6위로 추락했다. 전자랜드는 9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20-2021 현대모비스 프

로농구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78-83으로 패했다.

4쿼터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잠시 앞섰지만 끝내 고비를 넘지 못하고 6연패 수렁에 빠졌다.

개막 4연승을 비롯해 1라운드에서

7승2패로 단독 선두를 지켰던 전자랜드의 순위는 어느덧 공동 6위까지 내려갔다. 2라운드에서 2승7패로 부진하며 9승9패 5할 승률에 턱걸이했다.

전자랜드는 1라운드에서 평균 84.8점으로 공격력 3위에 자리했지만 2라운드 들어 평균 74.8점으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1라운드를 통해 상대들이 전자랜드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김낙현과 이대현 등 주요 득점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 김낙현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려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였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인 4일 안양 KGC인삼공사전에서 22점을 올렸지만 6일 부산 KT, 9일 LG전에서 각각 3점 6어시스트, 4점 5어시스트에 그쳤다.

부족한 선수층으로 인한 체력 부담도 언급된다.

김민정기자

김동수 해설위원은 “김낙현과 이대현이 많이 성장했지만 이제 상대들이 돌만 수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돌이 막히면 공격 전체가 쪼이는 모습이다”고 했다.

이어 “전자랜드는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많은 활동량을 가지는 팀이다. 매 시즌 초반에는 안정적이지만 체력 부담이 시작되면 수비와 움직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국 벤치 자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선수 구성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자랜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구단 운영을 접기로 했다. 전력 강화보다 운영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면서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 25억원 중 약 15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두 외국인선수 헨리 심스(13.5점 6.4리바운드)와 에릭 탐스(10.5점 9.3리바운드)는 꾸준한 만이 있지만 승부처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4쿼터가 되면 김낙현만 찾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FA도 7명인데...’ 원투펀치 결별 임박한 두산 ‘어쩌나’

내부 FA 대다수가 복수 구단 관심 받아



두산 베어스의 이번 겨울이 힘들기만 하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가운데 2020시즌 원투펀치인 크리스 플렉센, 라울 알칸타라와 모두 결별할 위기다.

2020시즌을 마친 뒤 두산에서 쏟아져 나온 FA만 7명이다.

최주환, 오재일, 허경민, 정수빈, 김재호, 이흥찬, 유희관이 2020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었다. 야수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FA로 풀렸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로 주축급 선수들이 한 번에 FA가 되면 다 잡기 힘들다. 두산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속에 내부 FA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내부 FA의 계약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지만, 벌써 원투펀치 중 한 명과는 결별이 확정됐다.

10일 오전 미국 매체들은 플렉센이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기간 2년, 보장 금액 475만달러(약 51억500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금 60만달러, 2021년과 2022년 연봉 각각 140만달러, 275만달러의 조건이다.

계약이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플렉센과 시애틀의 계약은 기정사실이다. 두산은 시즌 후반 플렉센과 재계약 방침을 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빅리그 구단의 러브콜

을 받은 플렉센을 잡을 수는 없었다. 알칸타라도 두산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날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타라와도 모두 결별할 위기다. 2020시즌을 마친 뒤 두산에서 쏟아져 나온 FA만 7명이다.

최주환은 이번 겨울 내야 보강을 전명명 SK 와이번스를 비롯해 3개 구단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환 측과 SK는 10일 오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다.

상성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오재일에게도 여러 구단이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고, 허경민을 두고도 복수 구단이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

내부 FA들이 다른 구단들과 활발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투펀치와 결별도 머지 않았다. 두산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미희기자

류현진, 올해도 올-MLB 퍼스트팀 좌절...2년 연속 세컨드팀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년 연속 올(ALL)-MLB 세컨드 팀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퍼스트 팀 선정은 불발됐다.

MLB 네트워크는 10일(한국시간) 2020시즌 올-MLB 퍼스트 팀과 세컨드 팀을 발표했다.

올-MLB 선발투수 부문 최종 후보 12명에 포함됐던 류현진은 퍼스트 팀으로는 뽑히지 못했고,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은 LA 다저 소속이던 지난해에도 세컨드 팀 선발투수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처음 제정된 올-MLB 팀은 양대 리그를 통틀어 올해를 빛낸 선수로 구성된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미

국프로농구(NBA)와 미국프로풋볼(NFL)처럼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시즌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MLB 팀을 뽑기 시작했다.

류현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만 치른 올해 정규시즌에 12경기에 등판,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의 빼어난 성적을 냈다.

그는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에 올랐다.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의 성적으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오른 지난해에도 세컨드 팀에 선정됐던 류현진은 이번에도 퍼스트 팀에 선정되지 못했다.

뉴시스

